

중동 정세 안정화의 선결조건

강준모

joonmokang@lgbr.co.kr

4월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반년이 된다. 휴전 협상 난항으로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에 호응하며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 운임이 상승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을 받고 있다. '화약고' 중동의 정세가 안정되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티의 해상 위협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 두 사안이 종결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조건들을 분석해보았다.

정세 안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실각, 혹은 퇴진이 될 것이다. 후티의 진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두 국가 해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도 팔레스타인의 분열, 트럼프의 복귀 등 혼란을 심화하는 불안 요소들은 남아있다. 당분간 중동의 정세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데탕트’를 가로막을 무력 시위 발생

작년 10월 하마스의 대대적인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하 이팔전쟁¹)이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거세지자, 예멘의 반정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하 후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수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로 ‘중동 데탕트²’가 거론되던 와중이라 그 충격은 더욱 심했다. 라마단³이 시작되는 3월을 전후로 중동의 혼란이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빛나갔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에 불참하고 있으며, 후티는 오히려 라마단 기간 군사작전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팔전쟁과 후티의 해상 도발은 각각 하마스와 후티가 최근 중동의 정세 변화, 소위 ‘중동 데탕트’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 ‘이란 대 사우디’라는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 배경은 ‘미국의 중동 전략 변화’이다. 중동산 석유 의존 감소, 중국의 부상, 국가 부채 누적 등의 이유로 미국은 중동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줄였다. 대신 우방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신설하며 이들의 관계 정상화를 종용했다.⁴ 한편, 미국의 군사 개입 감소는 이란과 종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사우디에게 큰 우려를 안겼다. 19년 ‘사우디석유회사(ARAMCO)’가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미국은 사우디의 방공망 확충 요청을 무시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실감했다. 마침 미국발 제재로 인한 경제난, 국내 반정부 시위 장기화로 인한 사회 혼란을 겪던 이란은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개입 축소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이란과 사우디 사이의 해빙 무드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는 하마스에게 불안 요소로 다가왔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에 본거지를 둔 무장 강경파 하마스와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온건 중도파 파타로 분열된 상태다. 이란과 사우디를 포함하여 139개 국가가 외교 관계를 맺은 ‘팔레스타인 국가’는 하마스가 아니라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관계 정상화가 진행될수록, 팔레스타인 정부의 정당성은 파타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무력을 통한 완전 독

1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무력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분쟁’이 맞는 표현이다. 다만 최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일상적으로 ‘이팔전쟁’이라 칭하는 만큼 본고에서도 해당 표현을 사용한다.

2 프랑스어로 ‘긴장 완화’라는 뜻으로, 적대 관계의 국가들 사이에서 지속되던 긴장이 풀려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1970~80년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다소 완화됨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3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소위 ‘금욕의 달’을 의미한다. 2024년 기준 3월 10일 ~ 4월 8일이다.

4 아브라함 협정(2020, 미국 주도의 이스라엘-UAE, 바레인 관계 정상화), I2U2(2021, 미국, 이스라엘, 인도, UAE 4개국 협력 포럼), IMEC(2023, 유럽-중동-인도 물류 및 에너지 망 연결 프로젝트)

립'을 주장하는 하마스는 고립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을 내건 후티 역시 '중동 데탕트'가 불안했을 것이다. 시아파 후티는 수니파 대통령지도위원회(PLC)와의 내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지만, 이란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후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⁵ 만약 시아파의 종주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 사우디의 대립 구도가 완화된다면, '사우디 견제'라는 명목으로 이란이 후티를 지원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이란이 외연 확장을 위해 수니파인 PLC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데탕트를 깨기 위한'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에 후티가 호응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정권 수명에 달린 이팔전쟁 휴전

반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거부하며 대 하마스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Bejamin Netanyahu, 이하 네타냐후)는 오히려 가자지구 피난민이 몰려 있는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세 차례나 거부하는 등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다. 미 중동전략의 교두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바이든 미 대통령(Joshep. R. Biden, 이하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네타냐후에게 '두 국가 해법' 수용을 제안하고 있다.⁶ 그럼에도 이스라엘 극우파 수장 네타냐후는 여전히 '두 국가 해법' 수용을 거부, '하마스 완전 제거'를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 하마스 강경 기조는 네타냐후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 23년 1월 삼권분립 원칙을 깨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사법 개혁의 여파로 네타냐후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3월에는 총 인구의 5.3%가 운집하는 등 반정부 시위는 네타냐후 정부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팔전쟁이 시작되며 반정부 시위는 잠정 중단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론은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하마스'에 대한 분노로 결집하였다. 가자지구 전면전 직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가자지구 공격이 과도하다'는 응답은 고작 1.8%인 반면, '공격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58%였다. 올해 2월 이스라엘 정치·사회 싱크탱크 '이스라엘민주주의기구(IDI)' 조사에

5 이란 역시 공식적으로는 후티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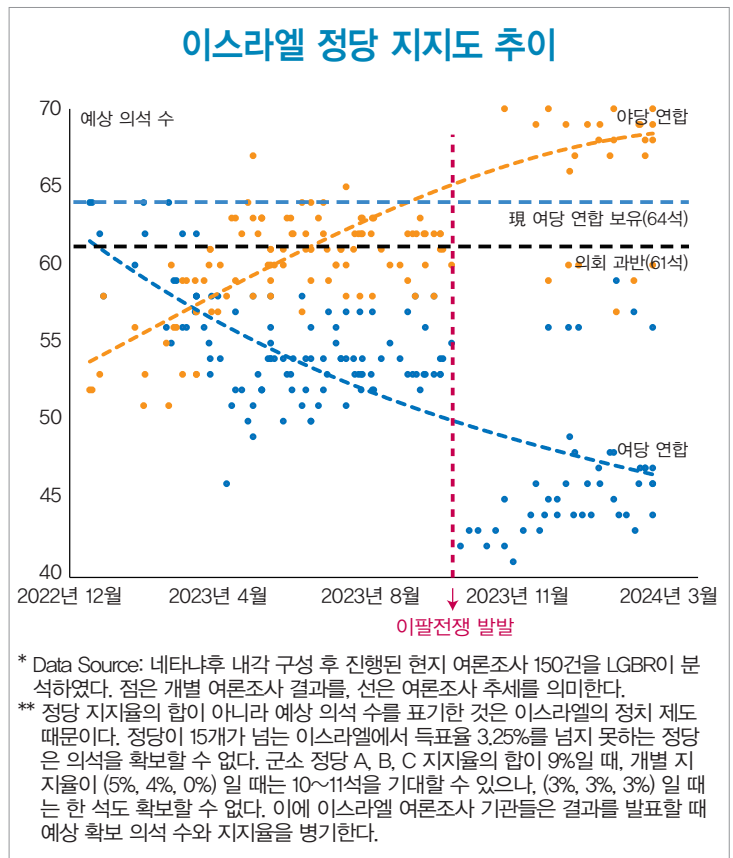
6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 불안정의 한 고리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두 국가 해법(Two State Solution)'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소를 위해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 자치권을 보장하는 안을 의미한다.

서도 휴전 협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37%였으나 반대는 55%를 기록하였다. 네타냐후는 ‘반 하마스 여론’에 편승해 총리직을 유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의 미래는 밝지 않다. 하마스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네타냐후에 대한 불신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초 여론조사에서는 ‘하마스 침공의 책임이 네타냐후에 있다’에 80%의 응답자가, ‘네타냐후가 퇴임해야 한다’에 76%의 응답자가 동의를 표했다. 작년 연말,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수천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재개되었다. 반 네타냐후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美 국가정보국(DNI)은 3월 중순 “네타냐후의 지도자로서 생존 능력이 위태로우며,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네타냐후의 정치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6개 정당 연정은 의회 전체 120석 중 64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팔전쟁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극우 연정은 20석 가까이 상실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기를 채운다면 26년까지 네타냐후 내각이 유지되겠지만, 이스라엘 의회는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⁷ 극우 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연정에서 5명만 이탈해도 네타냐후 정권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팔전쟁을 놓고 바이든과 네타냐후 간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지명 전당대회(8월 중순) 전 중동이 안정되기를 원할 것이다. 바이든은 네타냐후의 라파 공습 검토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휴전 협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는 3월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네타냐후 정권이 동아줄로 잡고 있는 이팔전쟁을 지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7 특히 정당 간 이합집산이 잦았던 2019년 ~ 22년 3년간 5회의 의회 해산 및 총선이 진행되었다.

네타냐후 연정이 무너지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온건파 중도주의 성향의 베니 간츠(Benjamin Gantz)다.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팔전쟁의 종료는 ‘네타냐후가 언제 실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두 국가 해법’ 수용 이후에 중단될 후티의 홍해 상 위협

이팔전쟁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친 것은 후티의 홍해 상 선박 공격 이 후이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상선’을 공격목표로 설정한 까닭에 많은 해운사가 수에즈 운하 및 홍해 경유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선택하였다. 해상 물류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⁸’는 이팔전쟁 직전 886에서 24년 1월 2239까지 상승하였다. 무력분쟁 장기화로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772(3월 15일 기준)로 전쟁 직전의 두 배 수준이다.

미 의회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후티는 첫 상선 공격부터 120여 일간 최소 68회 이상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현지 시각 3월 6일에는 첫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여, 통신망을 공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해군이 후티의 도발원점을 타격했지만 후티의 홍해 상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서 후티가 무력도발을 멈추고 지역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 사우디 등의 군사적 압박에 의한 중단’이다. 미국은 해상에서의 저지를 넘어, 육상 타격을 통해 후티의 무력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발원점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면, 미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자칫 이란이 참전하게 되는 등 확전 우려가 커진다. 대선을 앞두고 중동의 안정을 바라는 바이든이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후티와 접경한 사우디 역시 지상전력을 투입해 교전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에게는 지상군을 투입할 유인이 없다. 사우디는 산업다각화를 추진하며 홍해 연안에서 네옴(NEOM)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의 성료를 위해 이 지역의 안전이 절실하다. 사우디는 작년 3월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 4월부터 후티와도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영국이 후티 군사 거점을 타격하자, 사우디는 오히려 이들에게 “사태 진정을 위한 자제를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8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 처리 1위인 상하이를 출발지로 하는 15개 항로 컨테이너 운임비를 2009년 10월을 기준(1000)으로 산출한 지표이다.

유리한 시나리오는 후티 스스로가 무력 시위를 멈추는 것이다. 그 시점은 최소 네 타나후의 실각 및 이팔전쟁의 휴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티가 개입했던 직접적 명분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 타나후의 퇴진만으로 정세가 안정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후티가 무력 시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고립되지 않는 정세’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인질 및 포로 교환 수준의 휴전 협상을 넘어 팔레스타인의 완전한 독립, 즉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과의 휴전, 인질 교환’과 ‘팔레스타인 인정’은 또 다른 문제이며, ‘두 국가 해법’ 수용 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휴전에도 ‘두 국가 해법’이 무산되어 팔레스타인 자치권이 더욱 위축되거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무력으로 점거한다면 후티의 홍해 상 위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두 국가 해법’이 끝이 아니다

이팔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의 ‘두 국가 해법’ 수용은 중동 정세 안정화의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수용하더라도 중동의 정세가 순식간에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팔레스타인 내부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3월 15일, 국제사회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며 영향력을 키운 파타가 독단적으로 새 총리를 임명했다. 전후 정국에서 하마스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통치를 보장받더라도, 미국 및 이스라엘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는 파타가 하마스 대신 통치권을 이양받을 가능성이 높다. 2006년부터 반목해온 하마스와 파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동 정세 급변을 가져왔던 ‘이란 핵 협상 파기’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Donald J. Trump, 이하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분간 중동의 정세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G경영연구원

중동 정세 불안정의 뿌리, 이란과 미국의 대치

이란은 하마스와 후티를 비롯, 비공식적으로 시아파 ‘저항의 축’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미, 대중동 협상력을 회복,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² 위원과 ‘마즐레스’³ 의원을 뽑는 선거 결과 이란의 반미 극우정권 유지가 결정되었다. 사우디아와의 데탕트와는 별개로, 이란의 대미 강경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이에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계속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팔라비 왕조의 ‘재국’ 시절 이란은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서구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서구식 개혁에 대한 반감은 이슬람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미 대사관 점거로 이어진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상호 적대로 굳어졌다. 미국이 안정적 석유 공급을 위해 이란을 대체한 국가는 사우디 등 수니파 국가였다. 수니파를 이단으로 간주하는 시아파 이란은 미국을 더 적대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란은 지금까지도 핵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타결했던 이란과의 핵협상(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를 독자적으로 파기했다. 바이든은 취임 초기 JCPOA 복원을 위해 힘썼으나, 이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으로 그 동력을 잃었다. 후티의 민간 선박 공격 직후부터, 워싱턴 DC의 싱크탱크들은 바이든의 ‘이란 유화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⁴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 국면에서 추가적인 이란 제재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란은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 ‘반미연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의 핵 보유 의심이 깊어진다면 사우디 역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가 확실 시되는 이스라엘은 이란, 사우디의 핵무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1 Axis of Resistance, 미국 및 이스라엘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親) 이란 무장집단을 일컫는다.

2 총원 88명, 임기 8년의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종교국가 이란의 라흐바흐(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다.

3 한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이슬람 협의회 의회’를 일컫는 말로, 임기 4년, 총원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미국외교협의회(Council of Foreign Relations),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s),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등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은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으로 선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